

진안, 마을주민 보호구역 2개소 지정

성수면 원좌산, 정천면 갈거리마을 미끄럼방지 포장·보행로 등 설치 예정

진안군은 10일 통행량이 많아 잦은 사고 발생지역인 성수면 원좌산, 정천면 갈거리마을 2개소를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통행 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전북도에서 안전한 생활 SOC 구축을 위해 추진한 마을주민 보호구역 공모사업에 참여해 사업 대상지로 2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2억7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보호구역, 국도변 주민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지방도 및 군도 주

변 마을은 주민보호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성수면 원좌산마을은 지방도 49호선으로 풍혈냉천과 데미샘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에 따라 마을주민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정천면 갈거리마을은 지방도 725호선으로 국립문장산자연휴양림 출입구 마을이자 내리막 도로 선형으로 과속 차량이 많아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이다.

특히 진안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군비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시

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들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차량속도를 기존보다 10~20km 정도 줄이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이 없도록 단속카메라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보행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행량이 많고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마을에 대해 주민의 보행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농산물 잔류농약 제로

농기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필환)는 청정 이미지 부각과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업생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청정 이미지 부각과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약 오남용을 막고 불안정한 농약을 사용한 수입농산물을 차단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안전성 분석실은 잔류농약 320개 성분을 철저히 분석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진안·전주 로컬푸드, 진안시장 내 고품질매니저 센터에서 판매 중인 진안고원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분석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와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필환 소장은 "앞으로도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생산 농가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달아드리기

장수군은 10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장영수 군수와 한국의 장수군의 회 부의장, 김석기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영수 상이군경회장과

임순순 6.25참전유공자회장 등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렸다.

장영수 군수는 "수많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이라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251명의 가정에 순차적으로 명패를 부착 할 예정이며,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복지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집중 발굴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녀 차별 없는 행복한 무주 만들자

무주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제24회 무주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주관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일 무주수련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과거 10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과 희망메시지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과 황의탁 전라북도의회 의원, 주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단체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인홍 군수는 "양성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가정이 안정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양성이 평등한 세상, 무주다운 무주를 같이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참된 행복을 위해 여러분과 발맞추고 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발로 뛰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무주군교육발전전략화재단 측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또 △함께 한 100년, 함께 할 100년, △평등을 일상으로, 행복한 무주군, △하나 되는 양성평등, 두 배 되는 행복세상, △세상을 바꾸는 양성평등, 무주의 힘을 구호로 외치며 양성평등 퍼포먼스를 펼쳐 관심을 모았다.

화합한마당에서는 김성배 노래강사와 함께 하는 노래와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양성평등주간(7월1일~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법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1996년 '생명존중의식 확산'을 주제로 제1회 행사가 개최됐으며 2015년부터는 명칭을 여성주간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 새마을부녀회 이순희 회원(61세, 안성면)과 무주군 여성자원봉사회 김영미 회원(47세, 무주읍)이 양성평등사회 구현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군수표창을 수상했다.

대한적십자무주지구협의회 박순임 회원(57세, 무풍면)은 무주군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으며 농협 무주군지부 송혁 지부장이 무주군여성단체에서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정명임 회장은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양성이 조화롭게 결집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할 100년'

장수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성료

장수군은 10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영수 군수와 김종문 의장 및 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여성단체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할 100년, 함께할 100년"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 촉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10명에게 표창패 전달과 김이곤 강사의 '웃음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김옥이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대회를 통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 함께 노력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장수를 만들고 이번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함께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읍, 영농현장서 소통행정 펼쳐

진안군 진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박홍영)는 영농현장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을 농업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행정을 펼쳐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읍은 지난 4월부터 수박, 오이, 고추 등 영농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나섰다.

그 결과 요즘 진안수박의 포진거레를 앓고 있으나 표준계약서가 없어 애로가 많다는 농가 의견을 듣고 이를 바로 말끔히 해결했다.

진안읍은 117농가에서 110ha의 수박을 재배하고 있으나 간단한 구두 계약이나 형식적인 계약서 한 장으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박 포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농가에 배부함으로써 재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장수군은 10일 장수한누리전당 산더관에서 장수읍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의 인구교육 전문가 남북현 강사를 초청해 '초저출산·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고령층 건강 중요성과 자녀와 손주 성차별 및 자녀들이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레지오넬라증 예방 안전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냉방기 사용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냉각수 등 오염된 물로 인해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3군 법정 감염병) 예방에 나섰다.

레지오넬라증(여름~초가를 주로 발생)은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분수, 분무기 등 오염된 물속의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면서 전파(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없음)되는 감염병으로, 무주군은 대형건물과 숙박시설, 목욕탕, 찜질방 등 총 10곳을 선정해 환경수계시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집단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지도, 예방수칙 홍보에도 안전을 기할 방침으로, 시설관리자들이 직접 급수시설과 냉각탑 점검과 청소, 소독, 수온 및 소독제 잔류농도 관리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나갈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